제609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0년12월31일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모두 나와서 그의 영화로우심과 새 생명을 맛보라

신년 예배, 오전 9시와 11시에

제직들은 9시 예배에 참석토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사 60:1-3, 13).

하나님은 어두움을 가르시고 이 땅에 빛이 되어 오시기로 하셨다. 그는 모든 열방을 사하시는 영원한 소망이요, 심판과 구원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영광의 왕으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는 한 번도 성전을 지으신 적이 없으셨다. 그가 영원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이 땅을 다녀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를 경배하는 일이 멈추어진 적은 없었다. 피비린내나는 전쟁 중에서도 주의 백성은 참된 왕에게 무릎 꿇었고, 굶주림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은 왕의 얼굴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다. 심지어 부패와 타락의 암울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마침내 새롭게 하실 순결하신 주를 앙망하며 뜨거운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형제들이여,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를 향하여 나아오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영광의 왕을 향해 값없이 나오라!

2001년의 첫 예배가 1월 1일, 오전 9시와 11시, 두 차례에 드려지게 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한 해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다함께 기도하길 바란다. 특별히 제직들은 11시 예배에 몰리는 것을 피해서 오전 9시 예배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

공동의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2천년도 마지막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곧바로 열리게 된다. 공동의회는 무흠한 입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게 된다. 새로운 한 해의 예산과 금년 한 해 동안에 충현교회가 사역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만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

신학 칼럼

예수님의 탄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어릴 적 동네를 누비며 불렀던 찬송이다. 백화점을 가고, 레코드 가게를 가면 주변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찬송이다. 이 찬송을 부르고, 듣는 우리의 마음은 흥분된다. 세상의 구주가 되신 그분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쯤 사람들의 발걸음은 소동이 일어나겠지? 아니, 내 마음 속에도 어떤 유형의 소동이든지 일어나겠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오는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설렘이 있기를 갈망해 본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첫째, 그분이 정말로 나의 구주인가? 내가 그분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철저하게 가능성이 없고 비참한 존재인가? 나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동기를 외식함이 없이 바라보면 정말로 그렇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자신을 쳐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외면에 있다.

둘째,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에게 너무 충실하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과 세계관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권을 챙기는 데 능숙한 편이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두터운 벽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실패하고 만다.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나에게 참된 평강이 있는가? 만약 평강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참된 평강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주님이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 채워두었기 때문은 아닌가? 아니, 본질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번 성탄절은 동네를 소동시키기보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소동시키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조용히 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김 병 태 (목사, 15교구 지도)

2001년 청지기 훈련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더라" (막 1:38). 새로 임명된 교회의 일꾼들과 전(全)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구비시켜 복음의 증인을 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청지기 훈련이 1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오후 7시-9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된다.

훈련의 목표는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일꾼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일꾼의 바른 정신과 태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두고 있다.

은퇴 · 근속자 시상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5-8).

찬양예배 후, 그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들과 성실하게 사역에 임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모든 일에 더욱더 근신하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생애가 되길 바라며, 해당자들은 4시30분까지 본당 앞좌석에 앉아 주길 바란다. (명단은 6면 참조)

기도원이용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

연휴기간 중에도 충현기도원이 평상시와 같이 운영된다. 교회는 그동안 기도원의 건물을 보수하고, 주변환경을 가꿈으로써 성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주님과 함께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려는 성도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

2001년 제1차 성찬식

다음 주일(7일), 1부에서 5부까지 모든 예배 시에 시행

다음 주일에는 2001년의 첫 성찬이 베풀어진다. 한 해에 6차례에 걸쳐서 시행되는 예식이지만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앞에 놓았던 제자들처럼 언제나 '마지막 만찬' 이 되길 바란다. 두번 다시 치를 수 없을지 모를 마지막 만찬으로 말이다.

주일 예배 찬송가 변경

9장 '거룩 거룩 거룩'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는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사 6:1). 요한도 이사야가 보았던 동일한 영광을 보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계 4:8).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둔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부르던 찬송가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9장('거룩 거룩 거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부끄러운 입술이 성령의 성결케 하심을 힘입어 진정으로 찬송하게 되길 바란다.

2001년도 교구 모임장소

교구	모임장소	교구	모임장소	교구	모임장소
1	제2교육관(2층)	7	본당 지하(아멘홀)	13	교육관 314호
2	본당 지하(호산나홀)	8	제2교육관(4층)	14	메추라기홀
3	교육관 205호	9	갈릴리홀	15	베다니홀
4	복지관(지하2층)	10	복지관(지하1층)	16	교육관 414호
5	교육관 201호	11	교육관 212호	17	교육관 307호
6	교육관 407호	12	영아부실		

Sermon for next week

Remembering Jesus

(Luke 22 :19-20)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ering of Me.'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uke 22:19&20).

In today's Bible verses, the Lord gives details and clearly explains the Lord's Supper. He tells us what it is, who its for, and how we are to do it. He perfectly reveals its meaning so that we can "do this" for no other reason and with no other things. Remembering Jesus is an order, a command, for His disciples to follow so that they can eat the bread of true food and drink the cup of true drink. Those who "do this" have eternal life, and the promise of God to be raised up on the last day (see Jn. 6:54)! Therefore, let us reflect upon the significance of this holy meal so that we can come to His table in humble obedience and heartfelt appreciation.

Remembering Jesus is a command that bring to light a very important question: Do you know Him? Obviously, if you don't know Him you can't remember Him. The Lord's Supper is a personal remembrance. Jesus asks you to remember Him, not some doctrine, not even His teaching, but Him. At the Lord's Supper you have to remember Jesus Christ as your Lord. Amen! Through faith He is your Savior. There is a significant appreciation that accompanies knowing that He died for you. There is a certain way you act knowing that He is your Lord. You live with an expressed joy and happiness because of the great hope that comes from being a child of light in Christ. You gloriously remember who Jesus is and what it is He did for you. His order,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s an intimate time of reflection of His love, suffering, death, resurrection, and coming again.

Remembering Jesus is a command that bring to light a very important question: Do you know Him? Obviously, if you don't know Him you can't remember Him. The Lord's Supper is a personal remembrance. Jesus asks you to remember Him, not some doctrine, not even His teaching, but Him. At the Lord's Supper you have to remember Jesus Christ as your Lord. Amen! Through faith He is your Savior. There is a significant appreciation that accompanies knowing that He died for you.

Remembering Jesus is a command that strengthens believers. Whoever takes the bread and drink receives the blessings of the Lord. It's so easy! If you simply take by faith His body and blood you receive eternal life. Amen! Isn't is incredible? Isn't it powerful? Jesus took the bread, then He gave thanks, then He broke it, and He gave it to you. He explaine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This is a universal concept. Everybody has to take it. Whoever belongs to Him, His people, have to take it because this bread is His body which was given for you! His promise is so wonderful. You need to drink from this cup because it represents His blood which provided the new covenant. His flesh and His blood are the spiritual food that sustains your soul lifts it into His kingdom. You have to remember these beautiful things that the Lord provided for your salvation. Whoever remembers has eternal life because He is in you.

Remembering Jesus is a command that brings comfort and peace to all who partake. Don't forget, don't take this blessing as a ritual. Remember His judgment, His grace. Remember His mercy. "For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 (Jn. 6:55). Just as you eat and drink in order to have physical life, so you need to eat and drink to have spiritual life, eternal life. Jesus lives in believers,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and I in Him" (Jn. 6:56). When you take this bread and drink, and remember Jesus, you are given true peace. You are given the comfort to carry your cross. You are given the comfort and peace that surpasses the suffering and persecution you face as a child of God in this world. Jesus said, "Father, if You ar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k. 22:42). Jesus died for your comfort and peace. It's so simple for us to take it, but for Him, can you even imagine how hard it must have been? "And being in agony He was praying very fervently; and His sweat became like drops of blood, falling down upon the ground" (Lk. 22:44).

My dear friends, do you know, really know, how much Jesus gave of Himself for you? Do you realize the simplicity of you only having to take the blessings, in contrast to Jesus' suffering to give you the blessing? Don't you really want to remember this Lord's Supper for Him? Amen! This is the first Sunday of January, 2001. I'm so happy to take the Lord's Supper, and I'm so very thankful to hear His voic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is year of our life, let's really remember who Jesus is, what Jesus did, and what Jesus gave us. Let's proclaim these things until He returns. Amen.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20)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 20)

성찬은 중요한 명령이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만찬에 대한 자세하고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것을 위하여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제자들이 진리의 떡을 먹고 진리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지시,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날에 살려집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과 진심어린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중요성을 재조명해 봅시다.

성찬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그를 아십니까?'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모른다면 그를 기념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개인적인 기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교리가 아닌, 심지어 그의 가르침도 아닌, 그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긴 감사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행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의 자녀가 됨으로써 큰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의 표현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그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영광되게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인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그의 사랑,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을 반영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그를 아십니까?'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모른다면
그를 기념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개인적인 기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교리가 아닌, 심지어 그의 가르침도 아닌,
그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긴 감사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행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떡과 잔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를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그가 떼시고, 그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그의 백성은 이 떡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의 잔은 새 언약을 주는 그의 피이기에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가 당신의 영혼을 그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공급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념하는 자에게는 그가 당신의 안에 계시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동참함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참여하는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명령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축복을 하나의 의식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의 공의와 그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55). 여러분이 육의 삶을 위하여 먹고 마심과 같이 영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사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요 6:56).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위로와 평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예수님은 당신의 위로와 평안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몸소 체험해야 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더라"(눅 22:44).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셨는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대조하여 당신은 축복을 다만 받기만 하면 되는 단순함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만찬을 진정 그를 위하여 기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2001년의 첫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진정 기념합시다. 그가 다시 돌아오실 때 까지 이것을 기립시다. 아멘!

세례 그 다음은…

오 태 규 (선교위원회 전도사)

"전도사님! 바우티스마 간느니싸, 타이코트 간느 오네!(전도사님! 세례 받으니까 양복 사야 되는데요!)" 아침에 내가 말고 있는 스리랑카의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다. 세례를 받으니까 양복을 사야 한다고 야근이 끝난 아침에 부족한 잠을 뿌리치고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서울 시내로 나온 것이다. 세례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1년 내내 여름이다.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양복이 필요할 이유는 만무했다. 세례가 12월 24일에 있었기에 그들은 모(毛) 제품의 겨울 양복으로 맞추었다. 이들의 세례는 누구보다도 남달랐다.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2년 반을 기다려 왔다. 이러한 2년 반의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 더욱 세례를 갈망하게 했고, 그 의미를 더 부여하게 했다. 세례를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와는 너무도 달랐고, 세례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쓸 정도였다. 그러한 21명의 세례자는 나를 부끄럽게 했다. 그들의 모습과 눈은 이미 세례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전까지 일을 하고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야근 후에 전혀 쉼이나 수면을 취하지 않고 출석하고 교육을 받았다. 4주간의 교육 동안 한 번이라도 휴일 특근으로 빠질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이 확연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사뭇 나를 숙연하게까지 만들었다.

평생을 부처만 믿다가, 알라만 믿다가, 평생 신은 없다고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세례의 순간을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그들이 이제부터 주의 일꾼으로 일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그러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싸울 것을 생각하니 또한 그러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무릎을 꿇었던 분들의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나는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 아무 대가 없이 거저 티켓을 얻어 너무 멋진 공연을 보고 있는 듯했다.

세상 사람들은 보람을 어디서 찾게 되는지 그리고 무슨 종류의 보람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얻은 보람은 그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 무엇에도 뒤질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보람은 하늘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교회와 모든 성도 앞에서 자신들이 세례교인임을 선포하는 의식을 가졌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작일 게다.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거나 이끌어 준다는 것은 지난 24일의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흐리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들이 빛진 자의 삶으로 누군가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가까이 있는 직장의 동료로부터 멀리 있는 자신의 가족을 그리스도로 이끌기 바란다.

그 날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저 주님께 감사드릴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랄 것은, 그들의 품속에서 한국이든 그들의 나라에서든 자신의 자녀를 안고 유아세례가 베풀어져, 그 자녀의 신앙경력을 기입하는 칸만큼은 '모태신앙' 이 적혀지길 바란다.

단기선교 소식
LMTC 단기선교팀 출발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10일까지 단장으로 선교위원장 김의철 장로와 선교위원회 지도인 차병준 목사를 포함하여 13명의 LMTC 훈련생들이 모슬렘권 정탐을 위해 불가리아로 떠난다. 수도인 '소피아' 를 중심으로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가난하고 어두운 계층의 사람인 집시와 유랑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단원들은 이미용 사역과 고아원 방문을 통한 아동사역 그리고 찬양사역 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모슬렘권인 주변국의 집시와 유랑민에게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비교적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불가리아를 선교지의 기점으로 삼고, 그곳의 집시와 유랑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과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졌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여러 가지로 조사, 정탐하는 목적을 가지고 떠난다. 불가리아 단기팀을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란다.

기도제목

1. 불가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2. 이번 훈련을 통해 팀원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3.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당신이 승리 하셨습니다"

천 상 현 (청년1부, 73동기)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강남.

화려한 네온사인과 건물을 장식한 갖가지 장식물들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캐럴과 대중음악.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날은 우리 청년1부가 모두 강남에 나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그곳을 더욱 화려하고 멋지게 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하고 근사하게만 보이는 그 곳에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구원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는 그 강남의 화려하고 멋진 장식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근사한 곳에 생명이 없음을 … 그래서 우리는 참 빛과 생명을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외침이 강남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그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꾸 저를 간섭하시려 합니다. 저를 세상 속에 그냥 널부러져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분의 고집에 저는 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침이 세상의 깜짝 이벤트처럼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땅끝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증거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

마지막으로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그리고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나혼자 천국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홍 성 이 (권사, 5교구)

'91년에 은주와 은희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문방구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은주와 은희 또한 나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직 어리고 세상 경험이 없어 많이 힘들어 하였다. 문방구에서 일하다 보면 잦은 졸도둑들 때문에 은주와 은희가 대신 많이 혼나기도 하고 야단을 맞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서럽게 우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주인 내외에게 교회에 보내보는 것이 어떻게냐고 제안했다. 성당에 다니는 주인 내외는 의외로 쉽게 승낙을 하였고 은주와 은희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까지 일하고 한달에 두번밖에 쉬지 않는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외로 은주와 은희는 새가족부에 등록하고 빠지지 않고 말씀을 배워갔다. 서울에서 외롭게 지내던 그들 마음에 주님이 위로자가 되셨고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저녁 9시에 일이 끝나고 들어와 씻고 앉아 있는 그들을 붙들고 매일 '만나' 로 말씀을 나누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텐데 아무말없이 잘 따라 주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은주와 은희는 세례를 받게 되었다. 정말 기쁜 날이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방구가 문을 닫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질 때 어디로 가든 열심히 기도와 말씀 생활 잘 하라고 당부하였다. 은주와 은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고향인 지방으로 갔다. 지금도 가끔 그들에게서 전화가 온다. 시집가서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 3:6). 이 말씀처럼 은주와 은희자매도 주님이 잘 자라게 해주시리라 믿으며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서울역 총동원 전도회를 마치고

최 윤 석 (청년2부)

매년 성탄절이 앞둔 목요일이면 청년2부 회원들은 서울역에 주님을 전하러 갑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는 시간, 몇주 동안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서 서울역에 전하고자 마련된 서울역 총동원 전도대회!

추운 거울, 급한 걸음으로 서울역을 지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삐져리게 추위를 느끼고 있을 노숙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자 또한 세상에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시고 기쁨이신 주님을 전하고자 청년2부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좀 일찍 서둘러서 서울역 가는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거리에 장식된 불빛들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왠지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흐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명, 두명 청년부 회원들이 속속 도착을 했고, 서울역에 울려퍼지는 찬양은 점점 더 힘과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한번씩 발을 멈춰서서 우리들의 찬양을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 광장을 비추는 조명 불빛도 또한 회원들간에 서로 나누는 격려도 주님을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로 몸을 맞대며 추위를 녹여가며 찬양을 드렸고 노숙자 분들도 한분 두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기에 전도대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집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나왔느냐고 자세히 물어봐 주셨고 어떤 분은 수고한다고 헌금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노숙자 중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셨다고 하시며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춤까지 추셨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양말과 옷가지며 그리고 카드 그리고 빵과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왠지 무겁게만 보이던 그분들은 표정에서 조그만 미소를 보이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셨고,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느지막하게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은 조금은 힘들고 추웠지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삶을 반성하며 주님 오신 이 기쁨을 늘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김 동 석 (집사, 청년2부)

지난 해를 돌아보니 정겹던 삶의 모습들이 생각난다. 흰눈이 쌓인 성탄절 새벽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가지 꽁꽁 얼어붙은 몸조차도 잊은 채 새벽송을 돌며 찬양을 드렸던 시간들, 차 한잔을 마시며 전날에 있었던 성극이야기와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들, 집 안에 있는 큰 아이가 일어나 이불을 개거나 동생에게 무언가를 또박또박 설명해 줄 때, 걸음마 할 때 창틀에 기어올라가다 떨어져 부모의 마음을 놀라게 했던 신혼 초의 일들 등등… 그저 삶의 조각들이 따듯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12월이면 늘 나를 긴장하게 하며 고민하게 만들며 때론 잃었던 사랑을 찾게 하며 때론 나를 추하게 만들며 세속적으로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내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영적 원칙들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율타리적인 신앙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것이 없는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자랑할것이 있다면 늘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 들이 있기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인간의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내 자신에게 말씀을 통한 복음의 능력은 나를 만들어가며 나의 뿌리를 다시 찾게 해준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풍성한 지식을 소유한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한 일 중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행여 실패할까봐 자신의 약함을 느끼며 두려워하며 떠는 그의 겸손한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헌신의 삶을 요구하는 메세지이기에 감사한다. 이젠 한해를 접고 또 새로운 한해를 펴기 전 하나님의 계획속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또한 어려울때일수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 되기를 오늘도 바랄 뿐이다.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눈에 눈물을 주옵소서.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중보할 때에, 내 생활의 다른 모든 것을
눈물을 주옵소서, 해로 여길 때까지
날마다 당신의 보좌 앞에서, 내 마음에 당신의
무릎을 꿇을 때에, 눈물을 채우소서
눈물을 주옵소서,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간구하기를 배울 때에, 벗겨지리이다.
눈물을 주옵소서

못박히신 주님, 내 마음이 항상
이 차갑고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박힌 마음이 되어서
깨트려 주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불로, 피흘리게 하소서

내 마음을 녹여 주소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함께 할 때까지
내 영혼이 넘치게 하소서, 영혼을 위한 짐이
내가 주님의 소원으로, 매일 나의 영혼을
갈망하게 하소서, 녹이게 하소서.

내가 죄로 파멸된 인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을 위하여 갈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파할 때에
애타고 목말라 할 때까지, 나에게 눈물을 주소서
내 마음에서 모든 무감각함을, 내가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에
다시 한번 제하소서, 눈물을 주소서
내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위에 있는
태우는 불길이 타오로도록., 주님의 보좌를 가리킬 때에
눈물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녹여 주소서.

웨슬리 듀웰의 『열정적인 지도자』 중에서 발췌

만평

글 · 그림 / 김범헌

지금 변화받길

박 진 회 (청년2부, 면려회 부회장)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 때면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나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예수님 또한 이런 우리를 걱정하셨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성경 말씀보다 세상 경험과 가치관에 더욱 치중해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 세상적인 관습이나 행정에 익숙해 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더욱 그렇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말 거듭남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순간 나는 변화받겠다고 결단을 내려본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변화없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말이다. 주님의 제자된 자로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서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들 지체들이 모두 함께 변화되길 기도해 본다.

구역 탐방

군사된 자를 만들자

15교구 상도 2구역
구역장 김영란 집사

상도 2구역엔 '효진'이란 이름의 여섯살 난 구역원이 있다. 구역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모범 구역원이다. 효진이는 제일 먼저 자리에 와서 앉는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다. 다른 구역원들이 들어오자 효진이의 기도가 끝난다. 다른 구역원들이 예배를 드리려 하자 뭔가 난처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예배 드려야지 효진아, 어디 갈려구?"

"깜박하고 찬송가만 가져왔습니다.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의 성품을 나누는데 놀랍게도 여섯 살 난 효진이가 먼저 대답한다.

"저는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시고 저도 읽곤 합니다."

효진이는 말씀을 읽을 차례가 되자 전혀 어리광을 부리지 않고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다.그리고는 겸손히 손을 모은다. 행동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여섯 살 난 아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도대체 효진이의 이런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건 구역 예배의 모습을 보면 곧 이해가 된다.

구역원들은 주님의 군사된 자로 실수했던 경험을 먼저 나눴다. 그러한 실수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이쯤이야 어때?' 하며 조금씩 시작하는 일들이 나중엔 큰 죄가 된다는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한 구역원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을 보거나 하려고 해 보지만 나이가 드니까 멀미가 자꾸 나며 차가 흔들려 눈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 읽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심자가 군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온유와 순종이라고 서로 나누고 자신들의 온유하지 못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교회에 순종할 부분들을 나눴다. 나눔은 지나칠 정도로 순조로웠다. 모든 의견들이 수용됐으며 모든 구역원들의 생각들을 서로 인정했다. 아마도 구역원들이 이미 온유와 순종에 대해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런 구역예배의 구역원이라면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온유와 순종을 그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효진이가 자라면 얼마나 훌륭한 심자가군의 장수가 될는지 기대해 본다. (권요셉 기자)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고길종성도(41세)

직장암과 대장암으로 치료중입니다.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합니다.

김재수집사(69세)

귀뒤에 암으로 강남병원 592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홀로 살고 있으며 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7교구 원경희성도(51세)

난소암 수술로 서울중앙병원 51병동 9호(서관)에 입원해 있으며, 수술(12/20)후 보름 정도 입원치료 합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을 위한 기도와 병원심방 등을 통해 위로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의 편지

할아버지의 남은 사역

구 영 인 (권사, 15교구)

양대성 할아버지 보세요.

할아버지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제가 성경을 전해드릴 때도 할아버지야 믿든 안 믿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전한 거랍니다. 원래는 이봉애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시작한건데 이봉애 할머니는 못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시네요. 그게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다시 찾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할아버지가 저의 앞집 사시는 것도 큰 감사지요. 저는 5년을 기도했답니다. 할아버지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5년 전에는 이봉애 할머니가 다니셨는데 지금은 바뀌어 버렸죠. 할머니도 새가족부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쁘신지 잘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이제 나머지는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못하신 일, 이제부터 하셔야지요. 우선 할머니부터 전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은희, 승희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구요. 제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5년을 기도한 것처럼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에서도 모범을 보이시구요. 가장 큰 자녀사랑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랍니다. 태신자 잔치 때, 할아버지 모시고 간 일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 윗면의 '구역탐방' 사진의 오른쪽에서 두번째 조끼 입으신 분이 구영인 권사님. 세번째 분이 양대성 할아버지.

원로 · 은퇴 · 장기근속포상자

(원로)

권사

김옥래 장기옥 정춘수 최경복

(은퇴)

안수집사

마숙진 주영호

권사

궁희복 김금순 김발선 김복례 김분식 김선화 김영애 김희자
나선애 남은주 민은혜 박영신 서양순 오덕희 윤화숙 이남수
이상덕 이연순 이인경 조덕순 진희순 최선옥 최정이 필기복
한경옥 한순원

(장기근속)

25년

서리집사

김인석 장석환 정상주 임정자

20년

장로

오진국 이병학

권사

김영숙 김진란 김희자 오덕희 임순심 조귀남 진희순 한경옥

서리집사

고문진 김동안 김연준 김재성 김정표 서경준 손정익 이성섭
홍홍기 황일선 김수자 박경자 전성실 전정자 최영희 최경숙
한경분 홍문숙

15년

권사

김 순 김준자 김희옥 박영규 박영자 박인애 신순덕 안금옥
염미숙 윤수원 이지영 임선비 장현숙 전정숙 최태희

서리집사

공창호 김동옥 김성용 김윤환 김일주 김장진 김정길 김태연
김태호 류시태 박영기 박영봉 백남제 서길원 송한성 송홍주
신정호 이광국 이병두 이상용 이성실 이용호 장영순 정장원
조경행 조영구 최성조 최안옥 허만선 강옥희 구명숙 김금숙
김부영 김상인 김순곤 김숙옥 김재순 김정희 김중순 김춘숙
박영희 박제옥 송춘임 신영희 신정숙 심정례 오정남 이금순
이사복 이삼세 이소규 임정순 장민화 장화숙 정길례 정진순
조옥주 지아연 지영순 진화자 차봉순 최순혜 한애현 허혜균

10년

안수집사

김영은 박찬섭

권사

권오순 김정순 나선애 명정옥 박순옥 변성옥 유병순 유창순
이말분 이병자 이미재 이영영 이영자 이혜수 임정자 임옥환
장영자 전성자 정정숙 최정옥 최정이 한경숙 홍양례

서리집사

김규태 김남식 김명집 김민재 김수연 김연태 김영길 김인술
김인호 김종성 김종완 김종태 김진엽 김형종 남용철 문영규
민조식 박병선 박주하 변관재 송석주 신현길 오세길 오순도
윤재훈 이기찬 이두희 이상복 이상제 이석재 이영남 이정구
이정섭 이종석 이진규 이창희 장상길 장석두 장영창 정대원
조석구 지정록 최봉환 최승철 최홍식 편무산 한용호 한호철
황선구 황용조 강신순 강춘희 고순덕 구수진 김경숙 김경순
김남순 김두연 김명화 김미란 김봉선 김성희 김숙자 김순옥
김순제 김영미 김영숙 김영옥 김영하 김옥례 김옥순 김인덕
김정숙 김춘자 김춘자 김혜선 김희선 김희숙 김희숙 남혜숙
류향란 문인란 박순례 박영순 박영례 박옥자 박은숙 박춘자
박현숙 백정숙 변예선 서기순 서윤숙 신정순 신필식 안강옥
안행자 양순자 양영숙 양영희 오세은 오인숙 오준분 유명례
유순원 유승옥 유영순 유옥련 윤금자 윤숙희 윤영자 윤이임
윤황중 윤현숙 이금자 이늠이 이덕심 이명진 이아연 이양헌
이영순 이영순 이영옥 이용례 이정덕 이홍순 이희숙 임신자
임정자 임정희 임홍숙 장선자 장세복 장의정 정금순 정정근
정정금 정정순 정정희 정판심 정태영 조양덕 주순정 주순희
진영순 채명혜 천상순 최옥숙 최인상 최재순 최정화 최현숙
하두연 한성희 한영란

핸드벨

오지혜 최영주 김광미 홍미정 임희연 유현정 이보람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전 은 수 (에바다부 교사)

할렐루야!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에바다부 설립 12주년을 맞게 하시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급 수화교실에서 만나 이렇게 에바다부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농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소망을 심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에바다부 교사를 맡았을 때는 수화가 서툴러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분반공부용 공과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하지 못해 '수화 좀 잘하게 해 주세요.', '수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게해 주세요' 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선 기도의 응답과 함께 가슴 벅찬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연약하며 서투르고 가끔씩 마음이 앞 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중3 학생들이 벌써 고3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몸이 성장한 만큼 성숙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일꾼이 자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소망이 가득한 곳, 에바다부!

12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박인기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과 진흥용 장로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국내 농아인들뿐 아니라 세계선교에도 비전을 갖게 하시며 올해 일본 단기선교를 잘 마치고 제2차 2001년도 일본 단기선교를 기도로써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에바다부를 통한 세계선교의 비전을 두고 힘있게 기도하게 해 주시며 충현교회 에바다부에서 성장한 많은 천국일꾼들이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에바다부가 되게 하시며 성장 발전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인

오 후 연 (사랑부 교사)

고등부 3학년 때 우연히 우리 교회 교육관 1층의 사랑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발길을 멈추게 한 사랑부를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꼭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해가 지나 대학부 1학년이 되었을 때 빨간 카페트가 깔린 사랑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빨간 카페트는 걷히고, 나무바닥도 보일러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봉사관 지하 1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턱받이를 하고 왔던 진수는 키가 훌쩍 큰 아이가 되었고, 까만 속눈썹이 아주 예쁜 하나도 참 많이 커버렸습니다.

주일이면 예쁜 가운을 입고, 2~3절을 외워서 부르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O.H.P와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체계적인 공과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으로 사랑부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늘 동일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귀한 곳, 그래서 이곳에 머물려면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11월에 예쁜 아기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랑부에는 저와 함께 찬양팀 인도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이 함께 임신 중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집회시간에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눈물어린 기도 가운데 저는 건강한 아기를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저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답니다.

한주간 동안 엄청나게 보내지는 목사님의 문자메시지, 선생님들의 기도제목을 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아이들의 이름과 상태를 외우고 궁금해하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며 참으로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사랑부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바로 그분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진리의 샘

'열왕기서(King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열왕기 상편과 하편은 히브리인의 전통에서는 단순히 열왕기(Kings)로 불려지던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Septuagint or LXX)에 의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소개되었답니다. 그 후,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드(Vulgate)와 대부분의 현대 성경들이 두 권으로 나누어서 만들게 되었지요. 그러나 책을 분류했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와의 연관이랍니다. 70인경이나 벌게이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네 권의 연속성을 가진 책으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서 두 권, 열왕기서 두 권, 모두 네 권의 책이 사무엘을 통한 시작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의 군주들의 역사들을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열왕기서를 어떻게 읽을지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제일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열왕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11장에는 솔로몬에 대하여(삼상9장-왕상11장까지는 세 왕의 시대), 12장-열왕기하16장까지는 왕국 분열에 대하여, 그리고 열왕기하17장-25장까지는 멸망과 포로시대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솔로몬의 지도하에 절정에 달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는 분열된 영혼과 분열된 나라를 남겨놓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계속적인 탁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감과 동시에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과 포로로 전락되는 참담함을 보게 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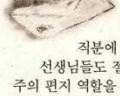
두 번째로,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함께 읽으셔야 할 성경이 있답니다. 그것은 선지서랍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선포의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 였구요. 그러나 열왕기서에 보면 꼼짝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을 발견하게 된답니다(이스라엘은 모두 악한 왕, 유다는 선한 왕 8명과 악한 왕 12명). '어떤 왕의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활동했나? 하는 것은 '구약배경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참고 도서를 통해서 꼭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도표처럼 일렬로 나열해 놓고 행한 일들과 평가를 기록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과 그들의 선포 내용도 함께 표시하면 금상첨화랍니다). 금을 캐기 위해 깊은 탄광 속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 꼭 명심할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의 관계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어느 왕이건 인간으로서는 진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구요. 여러분은 그 영원한 왕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랍니다. 그의 나라는 견고하며, 결코 패배하지도 멸망하지도 않는 견고한 나라이지요. 그리고 그 왕은 가장 선하며 거룩하신 왕이시구요. 그러므로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는 꼭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흠없으시고 완전하신 영원한 왕이시다!'

(김동하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도망간 편지



언뜻 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중등부 학생 회장을 지내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회장의 직분에 충실했다. 그것은 나 뿐 아니라 집사님과 권사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절대 의심치 않는 사실이었다. 나는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주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에 틀림 없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은 사건이었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도망하지 않을 텐데…

성탄절 새벽이었다. 중등부 학생들이 재잘거리며 새벽송을 부르러 따라 나섰다. 나는 맘 속에 담아두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마침 그 자매와 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나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새벽송 대열의 맨 뒤로 떨어졌다. 그 자매와 난 완전히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듯이 걸었다. 그렇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길거리의 한 주정뱅이가 우리를 잡았다. '기회다!' 나는 그 주정뱅이를 동정하는 멋있는 모습을 자매에게 보여주고 싶어 주정뱅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주정뱅이 말인 즉, 자신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으며 다시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거야 말로 진짜 기회였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내가 그럼 다시 다니자고 권했더니 그러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교회로 가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내 손으로, 내 입의 전함으로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때였다. 옆에 서 있던 자매가 지루했던지 그냥 새벽송 대열을 따라 가 버렸다. 이런! 난처함이. 이 또한 얼마나 공을 들여 잡은 기회인가. 나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 영혼을 구할 것인가. 자매를 따라갈 것인가 … 그렇다. 짐작들 하셨겠지만 난 자매를 따라갔다. 주정뱅이에게는 성경을 던져주며 '이거 읽어봐요.' 하고는 자매를 향해 달려갔다. 아니, 주정뱅이로부터 도망갔다. 달리면서 생각했다.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데 … 아까와라.'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새벽송을 끝내고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다시 그 자리에 가봤지만 주정뱅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새벽예배 때 울린 내 회개기도는 처절했다. 하나님! 다시는 … 다시는 … 내 육구충족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회개의 각오가 자매를 사랑함 보다도 뛰어나게 하소서.

지금 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준비중이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던 자매가 내 선교사의 비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 사랑하던 자매를 과감히 떠나 보냈다. 또다시 중학시절 처럼 도망할 순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하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면 수신지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는가.

(권요셉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알 림

1. 방송실 한글 자막 통역 봉사자 (찬양예배)구함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봉사할 한글 자막통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
   문의 : 552-8200(교환:224), 562-4872
2. 2001년도 교정전도회
   춘천 신촌 중학교 교사모집
   봉사기간 : 2001년 1월8일(월)~1월12일(금)
   교사자격 : 주님께 헌신된 성인 남 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실 분.
3. 법조인 전도회의 법률상담
   새해에도 2부예배 후 부터 찬양예배 전 까지 법률문제를 상담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4. 충현복지관 퀼트교실 안내
   내용 : 퀼트교실 초급반
   일자 : 1월3일부터
   시간 : 매주 수요일 9:00-11:30
   수강료 : 3만원(월1만원)
   문의 : 564-4885(내선3번)
5. 유 초 소년부 찬양대원 오디션
   일시 : 1월6일(토) 14:00
   장소 : 각부서 예배실
6. 탁아부 반주자 구함
   탁아부 9시 예배시 반주자 로 봉사하실 분 구합니다.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1월1일(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1월2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홀
3. 권사 임원 전체 기도회 및 월례회
   일시 : 1월3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남녀 전도회

1. 베드로 1지회 월례회
   일시 : 1월9일(토) 19:00
   장소 : 교육관 109호
2. 한나 2지회 월례회
   일시 : 1월14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호산나 찬양연습실
3. 루디아 3지회 월례회
   일시 : 1월5일(금) 11:00
   장소 : 칼빈홀

별 세

1. 김정배 성도
   (기정선 성도의 모친, 노승연 집사의 시모, 5교구 일원2구역) / 12월21일 별세, 12월23일 장례
2. 김봉연 성도
   (이종섭 장로의 모친, 홍명순 권사의 시모, 5교구 푸른구역) / 12월24일 별세, 12월27일 장례
3. 이순희 성도
   (박종오 권찰의 시모, 5교구 개포대치구역) / 12월26일 별세, 12월27일 장례
4. 지지순 은퇴권사
   (홍성욱 안수집사와 조승철 집사의 모친,, 7교구 광주구역) / 12월25일 별세, 12월27일 장례
5. 김순이 성도
   (정부조 집사의 모친, 정경궁 권사의 시모, 17교구 이배1구역) / 12월27일 별세, 12월29일 장례

◆ 1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I	II	III	IV	V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1	7	남선우	윤성철	이종섭	오정헌	손 철	조규호	조춘옥	김군자
	14	이하영	김종구	정운석	서동석	박영식	홍시오	김은심	현계식
	21	이병옥	김은호	임무천	최무길	안종욱	박정대	김순남	홍경선
	28	진홍용	문홍구	이 훈	노광헌	차신득	이석영	이소현	장성혜

교회 직원 모집

1. 근무직 및 자격
   ① 기사직 : 50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 대형1종 운전면허 소지자, 버스운전 경력자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격증 사본 ④ 자기소개서
   ⑤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환 402번)

결 혼

1. 홍경인 군(홍정해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염사라 양(염인섭 장로, 서양순 전도사의 딸) 1월5일(금) 13:00 갈릴리홀
2. 강성훈 군(강기석 안수집사, 유정진 권사의 아들)과 송미 양(송혼규 집사, 김명자 집사의 딸, 10교구) 1월6일(토) 13:00 온누리교회 본당
3. 원창훈 군(원홍순 집사, 오광숙 권사의 아들)과 이금주 양(곽도윤 권사의 딸, 11교구) 1월6일(토) 14:00 영암교회(☎924-6747)

남녀전도부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감사실시기간 : 오늘까지
2. 감사실시 장소 : 전도위원회실
11월 중에 회계감사를 받은 전도회는 제외

남녀전도부 총회속회

일시 : 31일(오늘) 15:00
장소 : 칼빈홀
대상 : 교구 및 전도회 연합회장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01	조병호	1	베드로		1109	한명숙	14	루디아	
1102	박성신	3	청년2부	정병화(3)	1110	왕은영	17	청년1부	최막점(17)
1103	박장원	4	청년2부		1111	조중혁	19	청년1부	
1104	김연숙	4	청년2부		1112	황외용	19	청년1부	
1105	이병택	4	청년2부		1113	이유경	19	청년1부	
1106	백무학	10	청년2부		1114	구자인	5	바울	
1107	민선영	10	청년2부		1115	양은실	19	청년1부	
1108	김성환	14	베드로		1116	박다솜	3	대학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직 앨범 사진촬영

① 촬영 대상 : 45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1999년 12월에 임명받은 2000년도 남 · 여 서리집사(찍었던 분도 다시 오세요) 2000년 12월에 임명받은 2001년도 남 · 여 서리집사
② 촬영 기간 : 2001년 1월 21일(주일)까지 주일만 촬영
③ 촬영 시간 :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30분 사이에 방문하여 촬영할 것
③ 촬영 장소 : 선교관 408호 홍보실
④ 주의 사항 : 촬영날짜를 지킬 것(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45주년 제직앨범(청색앨범)에 나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 않음

교회오시는길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화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10여년 전에 잠깐 교회에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4남매를 다 결혼시켰다. 이후 어느 날, 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몇 주밖에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참 좋다고 하신다.

'정봉근 · 구화자' 부부를 소개합니다

형님 내외분의 전도로 정봉근 성도가 충현교회에 등록하자 아내되시는 구자옥 타교집사도 같이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봉근 성도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아빠가 되었다. 본인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조선근 (기획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이병학 (제3교육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제2교육위원장)
엄필성 (청년3부장)	강모용 (새가족부장)	오정헌 (예배위원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제1교육위원장)	서동석 (당회부서기)	정운석 (제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초등부장)	조인제 (아멘찬양대장)	김종구 (유아부장)	최무길 (청년1부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창호 (청년2부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봉정위원장)
박영식 (전도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제5교구장)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제17교구장)	박인건 (제13교구장)	김인관 (제6교구장)	이병옥 (제3교구장)
안종욱 (재정위원)	최명환 (유년부장)	임무천 (고등부 장)	이종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최기홍 (제11교구장)	이갑재 (제15교구장)	진홍용 (에바다부장)	전홍렬 (제9교구장)
이정우 (·임마누엘찬양대장)	김단용 (중등1부장)	황영일 (제4교구장)	손 철 (영어교육부장)
한송규 (중등2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선교위원)	김환기 (신혼가정부장)
원웅철 (중등3부장)	이형수 (청년1부장)	안동현 (소년부장)	황의만 (대학부장)
김구형 (유치부장)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이승수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 교육목사 정준희

■ 협동목사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이집트) 안석렬(수리남) 정은희(수 단) 허용구(르완다) 권영일(수 단) 추진희(스리랑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강기엽(수단)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희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 교정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English Service	9:00 a. m.	갈릴리홀(Galilee Hall)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